

철학사

54 칸트의 형이상학에 대하여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그럼 오늘 오후에는 칸트의 초월적 변증법을 살펴보면서 그의 형이상학에 대한 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순수이성비판』의 앞부분 두 장에서는 인식론을 소개하는데, 초월적 미학은 감각 지각과 관련이 있고, 초월적 분석학은 우리가 내리는 판단, 즉 선험적 범주들, 다시 말해 경험을 해석하는 개념들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순수 이성비판』 전체의 목적은 이성적 형이상학, 즉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이 가능한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시작한 프로젝트는 가능한 것일까요? 존 로크와 같은 인물이 비슷한 야망을 품고 경험적 토대 위에 제시했던 그런 종류의 형이상학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형이상학의 가능성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첫 두 장, 인식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의 지식은 사물 그 자체, 즉 본질, 실재, 실체가 아니라 현상, 겉으로 보이는 사물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형이상학이 가능한가? 아니오. 적어도 지식에 대한 확실성을 요구하는 합리적 형이상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가 변증법에서 하는 일은 형이상학자들이 제시한 논증들을 변증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살펴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미리 말하는 것과, 형이상학자의 증명을 살펴보고 그것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변증법은 정신, 물리적 우주, 그리고 신에 관한 논증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논증들이 우리가 아는 한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선험적 개념들을 필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증명들 자체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어떤 지식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의 시도입니다. 이것이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서론에서 그는 믿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변증법을 통해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형이상학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식과 믿음의 구분 이 칸트에게, 그리고 물론 데이비드 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플라톤의 구분선을 떠올려보면, 계몽주의는 인간 지식의 모든 영역을 확실성으로 몰아붙였지만 결국 불가능 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영역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에게 그랬듯이, 정당해 보이는 믿음과 허구, 단순한 상상, 또는 환상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흄은 이미 그러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칸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경우에 칸트는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정신의 경우 정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에 대한 문제점을 '오류'라고 명명합니다.

자, 논리적 오류란 논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론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논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오류. 우주론 부분을 다룰 때 그는 모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증법적 논리란 어떤 명제를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를 모두 제시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 즉 노모스에 어긋나는 거죠. 논리의 법칙에 어긋나는 게 뭘까요? 바로 배중률, 즉 A이거나 A가 아닌 것입니다.

A와 비A,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생겼습니다. 따라서 모순은 논리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의 경우, 그는 관련된 오류의 종류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는 논증의 결과물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고의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상이며,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성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증명될 수 없는 이상일 뿐, 가정될 수는 있습니다. 가정한다는 것은, 즉 어떤 것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상정하는 것이지, 증명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명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합리주의 심리학의 오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저자는 소위 합리주의 심리학이라는 학문 전체가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은 데카르트 이후, 특히 독일 합리주의 전통에서 발전해 온 형이상학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형이상학을 세 가지 하위 분야로 나누는 것이 관례였는데, 바로 이러한 명칭들을 붙여 당시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카르트로 돌아가서, 합리적 심리학은 분명 그의 코기토(cogito)에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cogito, ergo sum),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기억하시죠?

나는 무엇일까?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실체.

생각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식 논증이며, 로크와 버클리 같은 학자들이 계승한 영혼의 실체에 대한 논증입니다. 마음, 즉 영혼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 그의 반대는 '인종'이나 '실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칸트의 12가지 범주를 외우지 않았을 것 같지만, 제가 당신이 외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실체'라는 범주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비평 초판부 389페이지에 있는 범주표를 다시 보시면, 양, 질, 관계, 양상이라는 네 가지 범주가 있는데, 관계의 범주는 실체와 속성, 즉 실체와 질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체와 사고. 여기서 그의 요점은 사고와 그 기저에 있는 바탕 사이의 연결, 즉 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개념을 부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논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꽤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종이라는 요소를 도입하는 순간, 이미 직접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셈이 됩니다.

당신은 실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코기토는 좋습니다. 그것은 속성, 특성, 성질입니다. 하지만 속성과 그 실체 사이의 연결 고리를 알지 못한다면, 속성으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는 사유하는 실체이다. 다만 선험적 실체 개념이 개입했을 뿐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 기준점이 없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왜 그러한 논리적 비약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한다.

내가 실체이며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의 연속성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금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과거에 생각했던 나, 그리고 오늘 생각했던 것을 떠올릴 때 내일 생각할 나, 이 모든 것을 긍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체라는 개념의 개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 이상을 긍정한다는 점일 뿐입니다. 또한 유물론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칸트에게 유물론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칸트는 맹목적인 인과 메커니즘을 내세운 뉴턴 과학을 현실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유도 없고 도덕적 책임도 없는 결정론적 우주가 도출될 것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말하는 유물론의 위험성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실체라는 개념의 침입은 당연히 유물론적 환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실체를 도입하는 것은 심신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신 실체와 신체 실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또 그 끔찍한 말장난을 떠올려 보세요. 칸트에 따르면 정신도 신체도 실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실체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에서의 심신 문제는 가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가짜 문제는 실체라는 개념이 개입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그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해답이 있다고 언급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해답입니다. 물리적 인과 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데카르트 철학 같군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다른 선험적 개념, 즉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도입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선형적인 조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우연론으로, 신이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체화했다는 것은 그것을 실체로 취급하기 위함입니다. 실체화(hypostasis)는 그리스어로 기질, 즉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초기 교회의 삼위일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 한다는 뜻 입니다 . 여기서 위격화한다는 것은 실체, 즉 영원한 실체를 가진 어떤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정신과 신체를 실체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 그것은 논리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실, 이것은 합리적 심리학에 내재된 오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린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 하지만 다른 시 세 편도 더 있습니다. 418 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 시들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도서관에서 『순수이성비판』 완본을 빌려서 그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영혼이 실체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로, 품질에 관해서 말하자면, 품질의 범주는 간단 합니다. 즉, 품질은 그 자체로, 나눌 수 없는 본질입니다.

범주, 즉 속성, 관계, 부정, 제한의 범주 로 돌아가 보면 , 논리적 속성, 긍정 명제, 부정 명제, 그리고 부정 명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있는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선형적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는 세 번째 개념은 그것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단일성 안에서 수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양의 범주인 것 같습니다.

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닙니다. 이것 또한 선형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간의 가능한 대상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심신 문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가능한 대상, 가능성, 그리고 필연성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범주가 존재합니다. 그는 양, 질, 관계, 양상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합리적 심리학에서 이 네 가지 범주가 모두 어떻게 관여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그 분야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경험과 성찰적 자기반성에 적용된 선형적 개념들로 이루어진 상상적 구성물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멩하니 보고 계시네요. 그렇게 간단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의 요점은 이러한 선형적 범주들은 이해의 범주일 뿐, 현실의 범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실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 입력을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왜곡합니다. 그 결과, '나는 생각하는 존재인가, 나는 생각하는 인종인가' 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내가 확장된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는 주장 또한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며,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존재인 나는 미래까지 내다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넘어지기 전에 이 케이블들을 덮어둬야겠어요 .

그건 또 다른 오류 논리겠죠. 좋아요, 그럼 합리적 심리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해 보이나요? 칸트가 훨씬 더 간결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제가 말했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그는 영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주장 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은 명분을 위한 온갖 영터리 논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는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당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영혼 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 그는 당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충하는 진실들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우주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428페이지, 429페이지를 펴보시죠. 428, 429쪽입니다 .

여기서 그의 주장은 영혼과 세계라는 용어 모두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규제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개념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은 우리를 유물론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점에서 규제적인 개념입니다.

세계는 또한 규제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사물에 대한 사고를 종합하는 방식, 즉 우리의 경험을 투영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429쪽에서 그는 심리학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경우에도 접근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는 우주론을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네 가지 범주의 명칭에 따라 양, 질, 관계, 양상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 구성의 절대적 완전성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한히 또는 유한하게 나눌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유한하게 확장되었는지 아니면 무한히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무한한 확장, 공간, 그리고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 또는 무한 분할 가능성, 즉 분할 가능성 과 관련이 있습니다 . 세 번째는 관계,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상, 즉 완전한 의존성, 우연성 또는 필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범주가 다시 관련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각 범주를 차례로 다룹니다 . 433페이지에서 그의 사고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제는 세계가 시간적으로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유한하다는 것이다 . 즉, 시간적으로는 지속기간이 유한하고 공간적으로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론은 이와 정반대이다.

세상은 시작 도 없고 , 한계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 모두 에 대해 무한합니다 .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의 방법은 논리학에서 귀류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논리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논리학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면, 정말 부족한 점이 많으신 겁니다.

귀류법은 명제의 거짓을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로부터 무엇이 도출될까요? 그리고 명제의 거짓을 근거로 참이어야 할 결론 , 즉 참이어야 할 결론 자체가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결론이 거짓이라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고, 명제는 참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글로 써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A를 증명하려면 먼저 A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A가 아니면 B가 성립하죠. 그런데 B는 거짓이므로 A는 참입니다.

또 멍한 표정이시네요. 발렌타인데이라 그런가 봐요. 정말 좋지 않나요? 발렌타인데이라니, 정말 좋지 않나요? 자, 물결선은 음수예요 .

적어도 깨어있네요. 물결선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A가 아니라는 거죠. 좋아요, A가 아니라는 건 B를 의미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B는 아닙니다. 자, 후건을 부정하면 전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A가 아닙니다. 즉, A입니다. 그래서 A를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러한 증명에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그는, 세상에 시간상 시작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주어진 모든 시점까지 영원이 흘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상태의 연속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한한 연속이란 결코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한한 연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작은 세상 존재의 필수 조건이다.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었다.

증명 완료. 바로 그거죠. 그는 정반합 같은 식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정명제 와 반명제 모두 참임이 증명됩니다. 아, 그건 모순 이군요. 모순율의 모순이죠. 그는 436절의 두 번째 예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합물은 단순한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단순한 단위, 또는 그 구성 요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 명제에 따르면, 어떤 복합적인 것도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단순하고 나눌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증명은 정반대의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논문에서 그는 복합 부분, 즉 복합 물질이 단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말한 다음, 귀류법으로 빠져듭니다. 440페이지의 세 번째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과관계, 즉 자유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네 번째 주장은 444 페이지에서처럼 말이죠. 결국 그는 이러한 모순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에 대해 그 유한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할 가능성에 대해 분할 불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론에 대해 자유의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한 논쟁은 전혀 없습니다. 양측 주장의 비중이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4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의 결론은 그가 '초월적 이상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초월적 이상주의.

네, 초월적 실재론은 단순한 표상을 사물 그 자체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열에서 초월적 관념론은 외부 직관의 대상은 시공간 속에서 표상되는 대로 지각될 때 실재할 수 있지만, 공간 자체와 시간, 그리고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사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마음 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현상과 본질의 구분은 유지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이네요. 좋습니다.

꽤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463쪽부터 시작하는 합리신학 부분을 살펴보세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그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세 가지 논증인데, 이는 당시까지 전통적인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존재론적 논증, 둘째, 우주론적 논증, 그리고 셋째인데, 흄은 이것을 '물리-신학적 논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목적론적 논증의 변형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흄이 그의 저서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논의한 세 가지 논증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같은 의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아니, 잠깐만요,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도덕적 논증이 있지

않나요?”라고 묻는다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그 논증을 처음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 자, 그럼 존재론적 논증부터 시작해 볼까요 ? 우선 , 여러분은 안셀무스나 데카르트 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개념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필연성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떤 명제일까요? 자, 주의하세요.

칸트는 존재가 명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명제는 주어와 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존재는 술어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것에 대해 서술할 때는 그 속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속성이 아닙니다.

서술 해야 합니다 .

하지만 필연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선험적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 양상, 우연성, 필연성이라는 범주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필연적 존재로 보는 개념을 분석하려는 존재론적 논증은,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했듯이, 그 개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는 이것이 분석적 진술인지 묻습니다. 보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석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신'이라는 용어, 특정한 이름 등은 필연성과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석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필연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존재론적 논증은 선험적 명제를 포함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연결동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주론적 논증, 즉 우주론적 논증은 실제로 존재론적 논증에 의존합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인과적 의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적 의존성 . 다시 말해, 우주가 필연적인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적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이 전제하는 바로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의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는 인과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선형적 범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론적, 물리신학 적, 목적론적 논증이 나옵니다.

우주의 질서, 사물의 질서 , 우리가 관찰하는 질서정연한 통일성 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식의 논증 은 우주의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형태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우주가 가진 형태에 근거하여 논증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건축가나 설계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질서정연한 우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설계자의 존재를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 설계자의 존재 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니까 목적론적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에 의존하고, 우주론적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론적 논증이 실패하니까 , 그 어떤 논증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은 목적론적 논증이 우주론적 논증에 의존하고, 우주론적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이 실패했으니 , 좋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을 제시해 봅시다 .

질서로부터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 에 대한 논증입니다 . 따라서 질서정연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필연적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

이제 당신은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신이 필연적인 원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필연적 존재 , 즉 신은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이야말로 존재론적 논증의 핵심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당연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이 이러한 종류의 모든 유신론적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 모든 사람이 칸트의 인식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칸트의 인식론이 틀렸고 범주들이 순전히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면, 칸트의 논증 전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다시 말해, 우연성과 필연성, 인과관계와 같은 것들의 객관적 실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칸트의 논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여기서 함께 가르쳤던 스투어트 해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신론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칸트의 범주론, 즉 범주론이 사유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범주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의 주장은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회의주의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려면, 그 범주들이 현실에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사실상 그는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범주들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그 증명은 성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칸트의 반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사전형성론을 받아들인다. 사유와 사물 사이에 사전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사물의 본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범주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킷의 범주론적 접근 방식이든, 아니면 좀 더 경험적인 방식이든, 이것이 분명히 한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은 존재가 고유 술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재가 고유 술어라면, 증명의 결론은 간단히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얽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칸트의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흠과 칸트의 논증 방식 중에서 흠의 방식이 더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화체 형식이 순수이성비판보다 읽기 쉽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네.

칸트의 입장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식론 때문이지, 그가 이러한 논증들을 풀어낸 방식 때문은 아닙니다 . 따라서 실제 논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는 어디에 서게 될까요? 음, 그는 480페이지에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칸트는 우리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몽주의적 의미의 지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은 자신이 영혼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전체 범위를 완성하기 때문에 생각해낸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480페이지 두 번째 열, 중간쯤에 있는 새 단락을 보세요.

따라서 이성의 순전히 사변적인 사용에 있어서, 최고 존재는 단지 이상으로 남을 뿐이지만, 결점이 없는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지식 전체를 완성하고 정점에 올려놓는 개념이다. 비록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반증할 수도 없는 객관적 실재이다.

물리 신학이 아니라 윤리 신학이 있어야 한다면, 그는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목적론적 논증을 물리 신학 적 논증이라고 명명했죠. 이제 그는 또 다른 가능성, 즉 윤리 신학적 논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 신학이 필요하다면, 이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초월신학이 그 개념을 정립하고, 감각에 쉽게 속고 자신의 관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이성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존재가 실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목적론적 논증에서 도출된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질서를 세우신 분, 건축가, 온 우주의 지혜로운 설계자이심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초월 신학은 매우 중요한 부정적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규제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규제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이 초월적인 이상에 의해 규제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는 '의견, 지식, 믿음'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두 페이지, 두 페이지 반 정도를 매우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칸트의 비판서 전체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그의 다른 저서에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짧은 형이상학 저서가 왜 미래의 형이상학에 대한 서론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그는 과거의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을 인정했지만, 미래의 형이상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미래의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암시를 처음으로 던집니다. 381행에서 그는 교리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리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그리고 그는 도덕적 신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신념 말이죠. 두 가지 종류의 신념이요.

교리적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지성으로 여기고 가장 현명한 목적을 위해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이상적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믿음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교리적 믿음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믿음은 다릅니다. 481페이지 두 번째 열 맨 아래 부분을 보세요.

도덕적 신념은 행동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제가 모든 면에서 도덕률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요 .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는 만약 내가 도덕률을 따라야 한다면, 이는 신의 존재와 내세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함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482쪽 맨 위에서 그는 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도덕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근거, 즉 제가 도덕적으로 확신한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 논리적인 확실성은 없지만, 도덕적인 확실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률에 도덕적으로 구속된다면, 도덕률의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저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을 미리 제시해 줍니다. 그는 이 논증을 여기서가 아니라, 발전된 윤리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성비판에서 전개 합니다. 따라서 서론에서 그가 말했듯이, 순수이성비판의 결과는 지식을 없애고 믿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이 변증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설명했네요. 좋아요, 질문, 의견, 토론 좀 하죠. 어?
오늘은 말씀이 별로 안 하시네요.

이념적 논쟁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창조주가 설계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물질이 이미 존재했다거나 세계가 설계자의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다른 신학적 관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우리는 물질 세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 물질 세계는 매우 질서정연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전체에 존재를 두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과관계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자들과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 되시죠? 네. 바로 이런 게 스코틀랜드 사실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토머스 리드 같은 사람들이요.

토마스 리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타고난 믿음, 즉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 물질적인 사물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존재 등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믿음을 바탕으로 신의 존재, 즉 창조주로서의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40년 전, 그러니까 130년 전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자였던 찰스 호지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의 조직신학은 장로교 신학의 표준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 실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우주론적 논증 과 목적론적 논증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존재론적인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질서에 대해 논증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칸트와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의 인식론적 차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개념을 강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개념을 얻는다고 주장하죠. 그들의 인식론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의미에서요. 칸트는 적어도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안에 있는 사물의 범주에 대해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적론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에 살펴볼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바로 그 논증을 펼칩니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판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의미의 미적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론을 설명하는 네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가지 서로 다른 세계관이 제시되고, 그제야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가 선택한 세계관은 물리신학 적 세계관, 즉 자연의 질서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세계관이다 .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정신이 가진 범주 체계가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향유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지를 근거 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논리적 능력보다는 미적 능력에 근거한 논증에 더 가깝습니다.

칸트는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뿐만 아니라 미학적 논증도 제시했습니다. 도덕적 논증은 『실천이성비판』에서, 미학적 논증은 『판단력비판』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둘 사이에 어떤 의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그의 인식론의 특정 측면에 의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둘이 서로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

자, 그럼 오늘 하루, 이번 주, 그리고 주말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